

‘허위 정보’ 난타전에 단일화까지... 전남광주특별시장 ‘격랑’

더불어민주당 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선출을 위한 본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경선 허위득표율과 눈가림식 카드뉴스를 둘러싼 공방이 고발전(戰)으로 격화되고, 민주화운동 세력간 전략적 연대가 가시화되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지라시’ 고발 vs ‘이중 잣대’ 논란... 과잉 훈탁 경선

2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경선주자 간 고발전은 지난 20일 예비경선 결과 발표 직후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된 정제불명의 득표율·순위 문건이 도화선이 됐다.

민행배 후보 측은 “허위 득표율 문자가 80여개 단톡방에 조직적으로 유포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유오의심자 7명을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이를 “선거 테러”로 규정하며 당 중앙선관위에 득표율 공개를 촉구했다.

문제가 된 문자에는 ‘받은 문자를 표시하는 ‘발’이라는 표시와 함께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 결과(기호순)’라는 제목으로 6명의 후보별 득표율이 소수점 아래 한 자릿수까지 기재됐다.

신정훈 후보 측은 민 후보의 ‘이중 잣대’를 공개 비판했다. 신 후보 측은 “민 후보 캠프 역시 과거 여론조사 수치를 활용하며 경선 득표율 1위(33.4%)인 양 오인하게 하는 카드뉴스를 제작, 대량 살포했다”며 “자신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정작 비양심적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카드뉴스는 하단에 깨알 같은 글씨로 출처를 명기했으나 ‘압도적 지지’ ‘예비경선 통과,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바로 옆에 노출되면서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관련 사안을 당 선관위에 고발하고, 민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 후보들.

예비경선 ‘허위 득표율·눈가림식 카드뉴스’ 고발전 격화

민주화운동 강기정·신정훈 단일화 행보... 합종연횡 기폭제?

◆강·신 단일화 시동... ‘결선 생존게임’ 본격화

경선 현장에서 고발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수면 아래선 2인 결선투표 진출을 노린 후보 간 합종연횡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가장 먼저 강기정 후보와 신정훈 후보가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두 후보는 23일 오후 천주교 광주대교구 옥현진 대주교를 공동 예방키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통합특별시장 출범에 따른 갈등 해소와 상생 방안 모색을 내세웠으나 지역 정가에서는 선제적 단일화를 위한 정치적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광주시장인 강 후보와 전남 기반 신 후보는 그동안 “만약 손을 잡는다면”이라는 가정법 질의에 강한 신을, 신은 강을 주저

없이 택했다. 82학번 동기로, 강 시장은 전남대, 신 후보는 고려대에서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민주화운동 동지이자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는 공통분모를 지녔고, 정치와 행정 현장에서도 오랜 기간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신 후보는 앞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인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의 전략적 연대에 의기투합한 바 있다.

광주에 기반을 둔 민행배 의원과 전남 동부권 유일 주자인 주철현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민 의원은 해남 출신으로 목포고, 주 의원은 여수 출신으로 여수고를 나왔고, 나란히 기초단체장 출신 재선 의원이고, 국회의원 사무실도 이웃사촌이다. 검찰 개혁과 자치 분권에서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민 의원은 “주 의원과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인연이 있고, 계산이나 셈을 따지지 않을 정도의 신뢰가 쌓였다”고 말했고, 주 의원 측도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재선 전남지사인 김영록 후보는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경선 중도 사퇴)과의 연대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경선 베이스캠프를 이 부위원장이 사용하는 건물로 옮긴 점도 결선 진출을 위한 연대 행보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후보와 이 수석부위원장은 서석초·서중·광주일고로 이어지는 ‘트리플 동문’이고, 행정고시 출신으로 고위관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라는 공통점도 지녔다.

정가 관계자는 “통합시장 선거는 처음 가보는 길여서 광주와 전남에 각각 뿌리를 둔 정치세력 간의 전략적 연대는 피할 수 없는 길이고, 판을 흔들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며 “특히 2인 결선이 확정될 경우, 2차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허위 정보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누가 더 설득력 있고, 실현 가능한 통합 비전을 제시하며 연대를 이끌어내는지가 본경선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동취재부

저소득층·노인·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2788명 모집 1인당 연 35만원... 우수이용자 추가 35만원

광주광역시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디지털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했으나, 지난해부터 17개 시·도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 주도형 사업으로 전환됐다.

광주시는 사업 전담기관인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올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직업학원 등 등록된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35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이 이용권은 수강료뿐만 아니라 해당 강좌의 교재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부 정책 변경에 따라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 제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대상

에서 제외됐던 대학생이나 청년도 신청할 수 있게 돼 청년층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성실하게 학습에 참여한 우수이용자에게는 추가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우수이용자로 선정되면 기존 35만원에 35만원을 추가해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총 2차례에 걸쳐 2788명을 모집한다. 1차 모집은 3월30일부터 4월15일까지 진행하며, 일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2067명, 노인(65세 이상) 196명, 장애인 280명을 선정한다. 이후 2차 모집은 4월22일부터 5월6일까지 진행되며, 디지털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30세 이상 시민 245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일반·디지털·노인 신청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gwangju)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용권은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광훈 기자

전남도, 25개 마을서 도시민 체류 ‘전남에서 살아가기’

전라남도가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전남에서 살아가기’ 사업을 올해 25개 마을에서 본격 추진한다.

‘전남에서 살아가기’는 도시민이 2~3개월 농촌에 머물며 영농 활동과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면서 귀농·귀촌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지원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참가자에게는 농·주거 정보 제공과 귀농·귀촌 상담 등 정착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올해 운영 마을은 서류와 현장 평가를

거쳐 전남 17개 시군 25개 마을로 선정했다. 평가는 기존 운영 실적과 전입률, 프로그램 구성, 전남 인력 확보 여부, 숙소 환경 등을 종합 반영했다.

각 마을에서는 농촌 생활 체험과 주민 교류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시민이 농촌의 일상과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고 안정적 정착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염선호 기자

건축위생관리사 1급
환경관리전문가 1급

유한드론솔루션

건물의 외벽, 외부 유리창 등 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 에너지 효율과 가치를 지키는 최적의 기술 투자입니다.

- 1. 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얼굴이자 방어막입니다.
- 2. 미세먼지, 매연, 산성 오염물은 빗물로 제거되지 않고, 외장재에 달라붙어 변색·부식·균열·누수를 유발합니다.
- 3. 오염 방치를 그대로 두면 단열 성능 저하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 4. 건물 이미지와 자산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5. 정기적인 외벽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정수 후

정수 전

</